

### S#1 피아노 연습실 / 낮

화면 서서히 밝아지면, 현주(23세, 여)가 피아노 연습실에서 피아노를 연습하고 있다.  
한창 피아노를 연습하고 있는 그때, 누군가 문을 벌컥 열고 들어온다.  
현주의 언니 지윤(27세, 여)이다.  
현주, 지윤을 보고 피아노 연주를 멈춘다.

현주: 언니...

지윤, 피아노 앞에 앉아있는 현주를 끌고 밖으로 나간다.

현주: 뭐하는 짓이야! 놔!

현주, 지윤에게 끌려가지 않으려고 저항한다.  
지윤, 현주의 팔을 끌고 걸어가다 현주가 팔을 뿌리치자 그 자리에 멈춘다.  
현주와 지윤, 서로를 말 없이 바라본다.

지윤: 지금 너 제 정신이야? 아빠 병원에 누워있는거 뻔히 알면서...  
(한숨을 쉰다) 우리가 콩쿨 나갈 돈이 어딴 거 현주야. 철 좀 들어...

현주, 지윤의 눈을 피한다.

### S#2 병실 / 밤

어느 종합병원 병실. 침대에 현주와 지윤의 아빠인 형철(57세, 남)이 누워있다.  
콜록콜록 기침을 하는 형철. 옆에서 현주가 수건에 물을 적시고 형철의 이마를 닦아주고 있다.  
형철, 다시 콜록콜록 기침을 한다. 현주, 휴지 몇 장을 꺼내 형철의 코에 갖다 대 코를 풀게한다.  
현주, 형철이 코픈 휴지를 돌돌 말아 쓰레기통에 버린다.

### S#3 병원 로비 / 오전

현주, 병원 로비 벤치에 앉아 꾸벅꾸벅 선잠을 자고 있다.  
잠시 후 지윤이 로비로 들어와 현주를 깨운다.

지윤: 현주야.

현주, 눈을 뜬다. 졸린 눈으로 지윤을 바라보는 현주.

지윤: 고생했어. 집에 들어가 쉬어.  
현주: (눈을 비비며) 응.

지윤, 현주를 지나쳐 병실로 들어간다.  
현주, 기지개를 펴다 무심코 로비에 틀어진 TV를 본다.  
로비 TV 속엔 클래식의 역사를 설명하는 교양프로그램이 방송 중이다.  
현주, 잠시 TV를 보다 자리에서 일어선다.

#### S#4 길거리 / 낮

현주가 길거리를 지나가고 있다. 횡단보도 앞에 멈춰서는 현주.  
잠시 신호를 기다리며 대기하는데, 건너편에 피아노 한 대가 놓여있는 게 보인다.  
피아노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현주. 잠시 후 신호가 바뀐다.  
횡단보도를 지나가는 현주, 피아노 앞에 멈춰 머뭇거리다 피아노 앞에 앉는다.  
현주, 조심스레 피아노 뚜껑을 연다. 그리고 손을 올리고 콩쿨 연습곡을 연주하기 시작한다.  
지나가던 행인들, 현주의 연주를 듣고 길을가다 멈춰 연주하는 장면을 카메라로 찍기 시작한다.  
현주, 어느새 행인들에게 둘러싸여 있다.

#### S#5 병실 / 저녁

지윤, 병실에서 무언갈 읽고 있다. 현주의 콩쿨 참가 신청서다.  
신청서에 쓰여 있는 어마어마한 금액. 잠시 후 문이 열리고 현주가 들어온다.

현주: 언니 잠시 바람 좀 쐬고...

현주, 지윤과 눈이 마주친다. 현주를 매섭게 바라보는 지윤. 현주에게 참가 신청서를 들이민다.

지윤: 너 정말 콩쿨 나갈거야?

현주, 아무 말이 없다가 입을 연다.

현주: 응.

지윤: 너 아빠 병원비 얼마 나오는 지 알지?

현주: 알아.

지윤: 근데도 콩쿨 타령이 나와?

현주: 돈은 내가 알아서 할게. 빌리던지 아니면...

지윤: 그 돈은 또 어떻게 갚을건데?

현주,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

지윤: 현주야. 지금은 예전처럼 넉넉하진 않잖아. 조금만 참자. 응?

현주, 누워있는 형철을 본다.

형철, 가쁜 숨을 내쉬고 있는 중. 현주의 시선이 떨린다.

CUT TO

현주, 형철 옆에 앉아있다. 지윤은 병실을 나간다.

지윤: 잠깐만 있어.

병실을 나가는 지윤. 현주, 형철 옆에 앉아 자신의 콩쿨 신청서를 읽고 있다.

한참 신청서를 읽는 현주. 잠시 고민하다 신청서를 찢는다.

신청서를 구겨 바닥에 던지는 현주. 그리고선 자고 있는 형철의 이마를 쓸어넘긴다.

그렇게 형철을 바라보고 있는 현주. 잠시 후 현주의 휴대폰이 울린다.

현주: 여보세요?  
규진: 아, 안녕하세요. 혹시 조현주님 휴대폰 맞나요?  
현주: 네 맞는데요..?  
규진: 아, 안녕하세요. 유튜브 영상보고 연락드렸습니다.  
현주: ..? 유튜브요?  
규진: 네, 횡단보도 앞 피아노에서 연주하신 거 현주님 아니신가요?  
현주: 네? 아...네 맞아요. 근데 어떻게?  
규진: 아, 잘 모르시는구나. 지금 그 영상 조회수가 110만까지 넘기고 완전 인기거든요.  
현주: 아 정말요?  
규진: 네, 저희는 공연기획산데, 이번에 단독 콘서트 제안드리려고 연락드렸습니다.  
현주: 아, 네네.  
규진: 혹시 시간되시는 날에 만나뵙고 싶은데 편하신 시간대 있으실까요?  
현주: 아, 네. 저 내일 오후 2시에 시간됩니다.  
규진: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후 2시에...

#### S#6 카페 / 낮

규진(29세, 남)이 카페에 앉아있다. 잠시 후 들어오는 현주.

현주: 박규진님..?  
규진: 아, 네 앉으시죠.

현주, 규진에게 목례를 하고 규진 앞에 앉는다.  
규진, 태블릿을 꺼내 현주에게 이것저것 설명을 한다.

규진: 보시면..2만석 규모의 공연장이고요. 페이지는...

현주, 규진의 설명을 귀담아 듣는다.

#### S#7 피아노 연습실 / 낮

피아노 연습실, 현주가 열심히 공연곡을 연습하고 있다.  
그 옆에 서 있는 지윤.

지윤: 그래도 잘됐다. 콩쿨 대신 기회가 생겨서.

현주, 대답 대신 싱긋 웃는다. 연습에 몰두하는 현주.

#### S#8 병실 / 낮

현주와 지윤이 병실에서 형철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형철, 몸을 일으켜 현주의 연주 팸플릿을 보는 중.

지윤: 아빠, 현주 공연한다니까 좋아?

형철,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인다. 기침을 하는 형철.  
현주, 급하게 휴지를 꺼내 형철에게 건넨다.  
휴지로 입을 닦는 형철.  
형철, 잔기침을 하며 다시 침대에 눕는다.  
현주와 지윤,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형철을 바라본다.

### S#9 공연장 대기실 / 낮

현주가 공연장 대기실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  
스트레칭도 하고 기지개도 펴며 만반의 준비를 하는 중.  
이때 전화가 울린다.

현주: 어, 언니.  
지윤: 현주야..아빠 지금 위독해.  
현주: 뭐? 어제까진 괜찮았잖아.  
지윤: 일단 신경쓰지 말고 연주회 잘 하고 와.  
현주: 아니, 지금 연주회가 문제야? 얼마나 위독한데?

지윤, 아무 말이 없다.

현주: 언니?

수화기 너머로 지윤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린다.  
현주, 잠시 전화기를 무릎 위에 올려둔다. 그리고 출입구를 바라보는 현주.  
잠시 망설이다 다시 전화를 집는다.

현주: 언니 기다려. 금방 갈게.  
지윤: 뭐? 무슨 소리요...

현주, 전화를 끊고 밖으로 뛰쳐나간다.

### S#10 병실 / 낮

현주가 병실 안으로 뛰쳐들어온다.  
그러나 이미 사망한 형철. 위생시트가 머리 끝까지 덮여져 있다.  
지윤, 형철의 시신을 붙잡고 우는 중.  
현주, 망연자실한 듯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토르륵 흘린다.

### S#11 길거리 / 낮

멍한 표정으로 길거리를 걷고 있는 현주. 횡단보도 앞에 선다.  
건너편엔 현주를 유명하게 해준 피아노가 놓여있다.  
현주, 멍하니 피아노를 바라본다. 잠시 후 바뀌는 신호. 현주가 횡단보도를 건너간다.  
피아노 앞에 멈춰선 현주. 피아노 앞에 앉는다. 천천히 피아노를 연주하기 시작하는 현주.  
피아노 소리가 거리에 울려 퍼진다.  
현주를 알아본 사람들이 하나 둘씩 현주 주위에 모여들기 시작한다.

END